

# 《池北偶談》 卷1 <談故 1>의 번역과 주해 (3)

김희경 · 김숙향 · 권운영\*

## <목 차>

1. 들어가며
2. 卷1 <談故 1>, 32-37편
3. 나오며

## 1. 들어가며

《지북우담(池北偶談)》은 청초(淸初)의 관리이자 학자이며 문학가였던 왕사진(王士禛)<sup>1)</sup>의 필기(筆記)로, 청대(淸代) 필기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왕사진은 강희(康熙) 24년(1685)부터 강희 28년까지 대부분의 시간

\* 고려대 중문과 박사(주저자, aixijing@hanmail.net)

고려대 중문과 강사(교신저자, sufaye@hanmail.net)

신한대 글로벌비즈니스 대학 국제어학과 교수(교신저자, chuntian@empas.com)

- 1) 왕사진(1634~1711)의 字는 貽上, 子眞이고 號는 阮亭 또는 漁洋山人이며, 山東省 新城 출신이다. 明 崇禎 연간에 태어나 淸 順治 15년(1658)에 進士가 되었고, 康熙帝에게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다. 왕사진은 사후에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다. 雍正 때는 ‘禛’자를 避諱하여 王士正으로 바뀌었고, 乾隆 때는 다시 士禛이란 이름과 文簡이란 諡號를 하사받으며 이름이 바뀌었다. 왕사진은 관리 집안에서 태어나 전통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45년 동안 여러 관직을 거쳐 벼슬이 刑部尙書까지 올랐다. 1704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사망하기 전까지 7년간 오직 저술에만 힘썼다. 왕사진은 神韻說을 주창하여 청대 詩壇에 큰 역할을 하였고, 만년에는 필기 창작에 힘써 여러 편의 필기 작품들을 남겼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漁洋山人精華錄》, 《漁洋文略》, 《漁洋詩集》, 《池北偶談》, 《香祖筆記》, 《居易錄》 등이 있다. 김희경 · 김숙향 · 권운영, <《池北偶談》 卷1 <談故 1>의 번역과 주해(1)>(《中國語文論叢》 第87輯, 2018) 참고.

을 고향에 있는 조부의 옛 저택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여러 문인·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문학과 경전, 역사, 제도, 인물부터 신기하고 괴이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자유로이 논의하였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이 관직 생활을 하며 적어두었던 글을 당시의 기록과 함께 정리하고 아들들에게 책으로 엮게 하여 《지북우담》을 완성하였다.<sup>2)</sup> 편찬 과정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지북우담》에 수록된 내용은 문학, 경학, 사학, 제도, 풍속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지북우담》은 <담고(談故)>, <담헌(談獻)>, <담예(談藝)>, <담이(談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26권 1,292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는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출판된 《지북우담》(1982)<sup>3)</sup>을 저본으로 하고 《사고전서》 수록본 및 《청대필기총간(清代筆記叢刊)》 수록본 등을 참고로 삼아 번역과 주해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sup>4)</sup>에 이어 권1 <담고 1> 가운데 32-37까지 6편의 문장을 번역하고 주해를 달았다. 《지북우담》의 첫 번째 편인 <담고> 편은 주로 조정의 전장(典章) 제도나 과거(科擧), 제왕이 신하들에게 내린 특별한 은전(恩典) 및 관료들의 훌륭한 사적들을 서술하였고, 간혹 옛 제도에 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sup>5)</sup> 이와 같은 <담고> 편の内容은 관련 역사서 및 필기와의 비교를 통해 명말 청초의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번역은 가급적 원문에 충실한 직역을 위주로 하되 우리말이 어색한 경우에는 약간의

2) 《지북우담》의 편찬은 강희 28년에 이루어졌고 강희 30년(1691) 가을에 왕사진이 序文을 씌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왕사진이 쓴 서문의 번역과 주해는 김희경·김숙향·권운영, <《池北偶談》 卷1 <談故 1>의 번역과 주해(1)>(《中國語文論叢》 第87輯, 2018), 267-268쪽에 수록하였다.

3) 王士禛 撰, 靳斯仁 點校, 《池北偶談》(北京: 中華書局, 1982). 1982년에 초판을 발행한 이후로 中華書局에서 여러 차례 출판을 하였지만 모두 靳斯仁이 點校한 《池北偶談》(1982)을 재판한 것으로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4) 김희경·김숙향·권운영, <《池北偶談》 卷1 <談故 1>의 번역과 주해(1)>, 《中國語文論叢》 第87輯, 2018. / 권운영·김숙향·김희경, <《池北偶談》 卷1 <談故 1>의 번역과 주해(2)>, 《中國語文論叢刊》 第43輯, 2019.

5) 《欽定四庫全書》, 子部 10, 《池北偶談》, 雜家類 3, 雜說之屬, <提要>(《四庫筆記小說叢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의역을 하였다. 주석에서는 주로 등장인물 및 관직 소개와 관련 전고(典故) 및 사건에 대한 보충설명, 다른 사료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에 대한 고증 등을 제시하여 논문의 학술적 성격을 높이고자 하였다.

## 2. 卷1 <談故 1>, 32-37편

### 2.1 <난음(難蔭)의 특별한 사례>

순치 연간에, 어사(御史) 장훙(張煊)이 울양상(溧陽相) 진명하(陳名夏)의 뜻을 거슬러 죽임을 당했는데, 세조(世祖) 황제께서 친정(親政)하신 후에 특별히 그의 아들인 제생(諸生) 장기원(張基遠)을 대상소경(太常少卿)에 임명하셨다. 그는 관직이 계속 올라 병부시랑(兵部侍郎)에까지 이르렀다가 지방으로 좌천되어 소송(蘇松)의 병비부사(兵備副使)를 지냈다.

강희 연간에는 직독상서(直督尙書) 주창조(朱昌祚)와 직무상서(直撫尙書) 왕등련(王登聯)이 법을 어겨 죽임을 당했는데, 황제께서 친정하신 후에 그 아들들이 원통함을 아뢰자 주창조의 아들 주불(朱紱)은 병부독포리사관(兵部督捕理事官)에, 왕등련의 아들 왕성당(王盛唐)은 대리시소경(大理寺少卿)에 임명하셨다.<sup>6)</sup>

6) 《大清聖祖仁皇帝實錄》 卷31, <康熙八年>條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追賜故原任太子少保戶部尙書蘇納海諡襄潛。故原任兵部尙書直隸總督朱昌祚諡勤潛。故原任工部尙書直隸巡撫王登聯諡愨潛。各祭葬如例。蔭蘇納海子瓦爾達，朱昌祚子朱紱，王登聯子王盛唐入監讀書。以通政使司左右通政大理寺少卿督捕左右理事官等缺用。”

<難蔭<sup>7)</sup>異典<sup>8)</sup>>

順治中, 御史張煊<sup>9)</sup>以忤溧陽<sup>10)</sup>相<sup>11)</sup>死, 世祖皇帝親政後,<sup>12)</sup> 特以其子諸生基遠<sup>13)</sup>爲太常少卿<sup>14)</sup>, 累陞兵部侍郎,<sup>15)</sup> 外遷<sup>16)</sup>蘇松<sup>17)</sup>兵備副使<sup>18)</sup>. 康熙中, 直

- 7) 難蔭: 청대에는 文武 관원이 공무로 인해 순직하면 그의 자손에게 관직을 내리는 것을 '難蔭' 또는 '難蔭'이라 하였고, 난음으로 등용된 자를 '蔭生'이라고 불렀다.
- 8) 異典: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내린 특례를 말한다.
- 9) 張煊(?~?): 山西 介休 사람이다. 明 崇禎 元年 진사로 知縣을 거쳐 河南道御史로 발탁되었다. 후에 大學士 陳演의 죄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변방으로 유배를 당했다가, 순치 원년에 侍郎 劉餘佑의 추천을 받아 다시 하남도어사를 제수받았으나 모친상을 당하여 귀향하였다. 순치 3년에 다시 浙江道御史가 되어 河南道의 일을 관장하였다. 순치 8년에 장훤은 대학사 陳名夏와 都察院左都御史 洪承疇, 禮部尙書 陳之遴 등이 작당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였다고 탄핵하였다. 그런데 당시 순치제는 사냥을 나가 있어 이 사건을 巽親王 滿達海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장훤은 吏部尙書 譚泰에 의해 무고죄로 몰려 처형되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담태는 多爾袞에 의해 처형되었다. 순치 9년에 장훤의 무고함이 밝혀져 太常寺卿으로 추증되고, 그의 아들인 張基遠에게 관직이 내려졌다.
- 10) 溧陽: 울양은 지금의 江蘇省 溧陽市이다. 강소성 서남부의 長江 삼각주 지역에 있으며, 江蘇, 浙江, 安徽 3성에 맞닿아 있다. 청 순치 2년(1645) 청조가 南明 정권을 무너뜨리고 南京을 점령하면서 명대의 應天府를 江寧府로 바꾸었고 울양은 강녕부에 소속되었다.
- 11) 溧陽相: 울양상은 울양 출신의 陳名夏(1601~1654)를 말한다. 진명하의 자는 百史이고 명 崇禎 16년에 殿試에서 3등(探花)으로 급제하여 翰林修撰 겸 戶兵二科都給事中을 제수 받았다. 순치 2년에 清廷에 귀순하여 王文奎의 추천으로 원래의 관직을 회복하였고, 吏部 左侍郎 겸 翰林侍讀學士를 거쳐 秘書院 大學士의 벼슬을 지냈다. 순치 8년에 御史 張煊이 진명하와 洪承疇, 陳之遴 등이 작당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였다고 탄핵하였으나, 도리어 장훤이 무고죄로 처형되었다. 이후 진명하는 순치 11년(1654)에 '머리를 기르고 옛 의관을 회복하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留發復衣冠, 天下即太平)'이라고 주장하였다가 寧完我에게 탄핵되어 순치제의 신문을 받았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 詩文으로 이름이 났으며, 저서로 《石雲居士文集》 15권이 있다.
- 12) 世祖는 청 제3대 황제인 순치제의 廟號이다.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는 순치제가 사냥을 나갔었기 때문에 巽親王 滿達海에게 맡겨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었다. 나중에 순치제가 사건의 진위를 밝히고 일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親政한 후'라고 한 것이다.
- 13) 張基遠(?~?): 장기원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지북유담》의 기록에 따르면 張煊의 아들로, 청 순치제 때 難蔭으로 太常少卿에 임명되었고, 이후 관직이 계속 올라 兵部侍郎에까지 이르렀다가 지방으로 좌천되어 蘇松의 兵備副使를 지냈다. 《淸史稿·卷二百四十四·列傳三十一》의 장훤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장기원의 관직이 禮部侍郎에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다.(……遂下詔雪煊冤, 贈太常寺卿, 賜祭葬. 以贈官官其子基遠, 官至禮部侍郎.)
- 14) 太常少卿: 太常寺는 五寺(大理寺·太常寺·光祿寺·太僕寺·鴻臚寺) 가운데 하나로 宗廟 禮儀를 관장하였다. 태상소경은 장관인 太常寺卿의 일을 보좌하는 부장관으로 위로는 경, 아래로는 主簿 등의 관직이 있다.
- 15) 兵部侍郎: 병부시랑은 병부의 부장관으로 청대의 품계는 종2품이다. 병부는 武官의 人事와 兵籍, 軍令, 무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 16) 外遷: 지방으로 좌천되는 것을 뜻한다.

督尙書<sup>19)</sup>朱昌祚<sup>20)</sup>直撫尙書<sup>21)</sup>王登聯<sup>22)</sup>中法死, 上親政後,<sup>23)</sup> 其子頌冤, 以朱之子紱<sup>24)</sup>爲兵部督捕理事官<sup>25)</sup>, 王之子盛唐<sup>26)</sup>爲大理寺少卿.<sup>27)</sup>

- 17) 蘇松: 소송은 蘇州府와 松江府를 말한다.
- 18) 兵備副使: 병비부사는 명청 시기 변방 및 각 성의 요충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치한 兵備道의 관리를 일컫는다. 대개 按察司副使나 僉事가 겸직하였으며, 兵憲 또는 兵備僉事라고도 한다. 명 弘治 연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원래는 임시 파견직의 성격을 띠었다가 나중에 상설 관직이 되었다. 주로 관할 지역의 군사 업무를 처리하거나 지방 군대와 名馬·屯田 등을 감독·관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19) 直督尙書: 直督은 直隸總督을 말한다. 당시 주창조가 兵部尙書로 燕(河北)·魯(山東)·豫(河南) 3성을 맡아 다스렸기 때문에 직독상서라고 칭한 것이다.
- 20) 朱昌祚(1627~1667): 자는 雲門이고 高唐州(지금의 山東省 高唐縣 梁村朱樓) 사람이다. 명 崇禎 11년(1638)에 淸兵이 山東을 함락시켰을 때 북방으로 끌려갔고 이후 漢軍 鑲白旗에 예속되어 宗人府 啓心郎을 지냈다. 순치 원년(1644)에 청병을 따라 入關하여 순치 18년(1661)에는 工部侍郎을 거쳐 浙江巡撫를 역임하였다. 그 후 江西總督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兵部尙書로 임명되어 燕·魯·豫 3성을 맡아 다스렸다. 이때 輔政大臣 鼇拜가 圈地를 전횡하면서 주창조와 尙書 蘇納海, 巡撫 王登聯 등에게 일의 처리를 맡겼는데 주창조 등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불가함을 역설하였다. 결국 오배는 자신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주창조와 그의 아들, 왕등련 등을 처형하였다. 후에 강희제가 친정을 하게 된 후 오배의 죄가 드러나면서 주창조의 억울함을 알게 되자, 그의 관직을 회복시켜주고 아들인 朱紱에게도 督捕理事官의 관직을 내렸다. 참고로 권지는 八旗兵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줄을 친 뒤 경계선 내 토지를 몰수하는 방법으로 청대 공신들이 하사받아 소유하던 토지를 말한다. 순치 원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이후 만주 귀족들의 전횡과 그로 인한 각종 폐단이 속출하여 결국 강희 24년에 완전히 금지되었다.
- 21) 直撫尙書: 直撫는 直隸(保定)巡撫를 말한다. 당시 王登聯은 직례보정순무 겸 工部尙書였으므로 직무상서라고 칭한 것이다.
- 22) 王登聯(?~1666): 왕등련은 山東 茌平縣 李寨村(지금의 山東省 聊城市 茌平縣 李寨村) 사람으로, 원래 姓은 李인데 幼年 시절에 遼寧을 떠돌다 王氏 姓을 가진 이에게 거두어져 왕씨가 되었다. 청 순치 5년에 舉人이 되었고, 通政司參議, 順天府丞, 大理司卿, 保定巡撫, 工部尙書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政要三誠》, 《日晷存錄》 등의 저서를 남겼다. 왕등련은 강희 5년인 1666년에 <圈地疏>를 올려 권지의 이로움과 폐단을 밝히고 백성들을 위한 명을 내려주기를 청하였다가 輔政大臣 鼇拜에게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 1667년에 강희제가 친정을 하게 된 후 오배는 그간의 전횡이 드러나 결국 유죄되었고, 왕등련의 무고함도 밝혀지게 되었다.
- 23) 강희제는 1662년에 8살의 어린 나이로 황위에 올랐다. 강희제의 할머니인 孝莊太皇太后는 직접 수렴청정을 하는 대신 네 명의 輔政大臣들(吏部尙書 赫舍里 索尼, 兵部尙書 瓜爾佳 鼇拜, 刑部尙書 納喇 蘇克薩哈, 戶部尙書 鈕祜祿 遏必隆)에게 정책 최고 의결권을 내렸다. 강희제는 1667년(강희 6년)에야 친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인 의례와 함께 정식 즉위식을 치렀다.
- 24) 朱紱(?~?): 주발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지복우담》의 기록을 통해 그가 兵部尙書 겸 直隸總督을 지냈던 朱昌祚(1627~1667)의 아들로, 강희제가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 難蔭을 통해 관직에 올라 兵部督捕理事官의 벼슬을 지냈음을 알 수 있다.
- 25) 兵部督捕理事官: 독포리사관은 청초 督捕衙門의 관리로 도망간 旗人들을 추포하는 일을 맡았다. 순치 11년(1654)에 설치되었으며, 滿州人과 漢人 각 한 명씩의 左右理事官을 두

## 2.2 &lt; 두 사람이 《오경(五經)》으로 한림(翰林)에 들어가다 &gt;

강희 정묘년(丁卯年, 1687)에 실시된 순천부(順天府) 향시(鄉試)에서 해녕(海寧)의 사사한(查嗣韓)과 후관(候官)의 임문영(林文英)이 모두 《오경》에 관한 소(疏)를 지어 이름이 나자 특별히 거인(舉人)의 지위를 내리셨다. 이듬해인 임진년(戊辰年, 1688)에 모두 회시(會試)에 급제하였는데, 사사한은 방안(榜眼)으로 급제하였고 임문영은 서길사(庶吉士)에 임명되었다.

## &lt; 兩五經入翰林 &gt;

康熙丁卯<sup>28)</sup>順天鄉試, 海寧<sup>29)</sup>查嗣韓<sup>30)</sup>候官<sup>31)</sup>林文英<sup>32)</sup>皆以《五經》疏聞, 特賜舉人, 明年戊辰<sup>33)</sup>俱中式, 嗣韓榜眼<sup>34)</sup>及第, 文英庶吉士.<sup>35)</sup>

었다. 원래 兵部에 소속되었다가 강희 38년(1699)에 刑部로 병입되었고 이후 폐지되었다.

- 26) 王盛唐(?~?): 왕성당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지북우담》의 기록을 통해 그가 工部尙書 겸 直隸(保定)巡撫를 지냈던 王登聯(?~1666)의 아들로, 강희제가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 難蔭을 통해 관직에 올라 大理寺少卿의 벼슬을 지냈음을 알 수 있다.
- 27) 大理寺少卿: 大理寺는 五寺 가운데 하나로 형벌과 獄詞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대리시소 경은 장관인 大理寺卿의 일을 보좌하는 부장관으로 2명을 두었으며 품계는 종4품상이다.
- 28) 康熙丁卯: 강희 정묘년은 강희 26년으로 1687년이다.
- 29) 海寧: 해녕은 浙江省 嘉興市에 속한다. 서쪽으로는 杭州와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錢塘江이 있다.
- 30) 查嗣韓(?~?): 자는 荊州이고 호는 墨亭이며 浙江 海寧 사람이다. 查愼行, 查嗣庭 등과 같은 집안 사람이다. 강희 26년에 순천부 향시에서 《오경》에 관한 疏를 지어 舉人이 되었고, 강희 27년(1688) 廷試에서 一甲 第二名(榜眼)으로 進士及第하여 翰林院編修를 제수 받았다. 강희 30년에는 會試同考官을 맡았고, 강희 38년에는 順天武舉鄉試의 副考官을 맡았으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
- 31) 候官: 후관은 侯官이라고도 쓰며 옛 縣名이다. 청대 이후로 '侯官'으로 통용하였다. 명칭 시기에는 福州府의 治所였다.
- 32) 林文英(?~?): 임문영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지북우담》의 기록을 통해 그가 候官 출신으로 강희 정묘년(1687) 순천부 향시에서 《오경》에 관한 疏를 지어 舉人이 되었고, 이듬해인 무진년(1688)에 회시에 급제하여 翰林院庶吉士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3) 戊辰: 무진년은 강희 27년으로 1688년이다.
- 34) 榜眼: 명칭 시기 과거 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殿試에 합격한 이들에게 출신을 하사하는데 이를 進士라고 한다. 합격자는 다시 3등급으로 나뉘는데, 1甲 3人에게는 '進士及第'를 내리고 차례로 '狀元', '榜眼', '探花'라 하였으며, 2갑과 3갑은 각각 進士出身과 同進士出身을 하사하였다. 진사는 대개 翰林官으로 등용되었는데, 보통 장원은 修撰, 방안과 탐화는 編修로 임명되었다

## 2.3 &lt; 토로번(土魯番)의 표문(表文) &gt;

토로번(투루판)은 순치 13년(1656)부터 조공을 바쳤다. 강희 12년(1673)에는 토로번의 국왕 마묵특새이특한(瑪墨忒塞伊忒韓)이 다시 그의 신하 옴로 화등(兀魯和陞) 등을 보내 말을 헌납하였는데 그때 올린 표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sup>36)</sup> “토로번의 국왕 모(某)가 성스럽고 어질게 천하를 다스리시는 황제 폐하께 올립니다. 공경하여 삼가 생각하건대, 폐하께서 천하를 통일하여 한데 모이게 하심이 옛날 점십특(占什特)과 무엇이 다르며, 만물에 혜택을 내리심이 옛날 달랄한(達拉汗)과 같고, 법률의 기강과 군대의 위력이 해흑새로(楷黑塞勞)의 융성함에 견줄 만하며, 총명하여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심이 이사검달이(伊思謙達爾)에 필적할 만하십니다. 폐하의 천부적인 예지는 떠오른 해가 두루 비추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고, 폐하께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다스리심은 달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으며, 번쩍이는 천자의 깃발은 묵오척이(墨烏戚爾)를 초월하고, 황은(皇恩)의 호당함은 관대하고 어진 도량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라의 복이 끊어 없어 온 나라가 편안하고, 홍복(洪福)이 끊어 없어 황제의 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될 것입니다.” 뒤에 1083년 2월 28 일이라고 하였다. 내가 옛날 예부(禮部)에 있을 때, 하란(荷蘭: 네덜란드)과 섬라(暹羅: 태국), 유구(琉球) 등의 표문을 본 적이 있는데, 종이는 금화전(金

35) 庶吉士: 서길사는 庶當이라고도 한다. 명칭 시기 翰林院에 속한 벼슬로, 진사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문학이나 서예 방면에서 우수한 사람을 골라 임명하였다.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로 詔書의 초안을 짓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36) 《清聖祖實錄》 卷42, <康熙十二年五月>에 이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癸未。吐魯番國王瑪墨忒賽伊忒汗。遣陪臣兀魯和際等。進表貢方物。又奏：臣國向以方物進貢中國已久。及聞天朝統一寰區。不勝欣喜。順治十三年。進貢方物。蒙頒上諭。五年一貢。西馬四匹。蒙古馬十匹。後值臣國變亂。不能如期進貢。今地方稍平。特遣兀魯和際等。謹獻微物。嗣後進貢。或仍照前制。或作何定奪。伏乞上裁。得上□日。覽奏。該國遠來進貢方物。具見悃誠可嘉。其作何進貢之例。著該部議奏。” 기록에 의하면 순치 13년에 阿布都刺汗이 공물을 바친 이후, 土魯番과 哈密 일대에 변란이 발생하여 5년에 한 번 바치기로 했던 공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다가 강희 12년(1673)에 다시 공납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당시 토로번 국왕 ‘瑪墨忒賽伊忒汗’이 신하를 보내 공물을 바치며 그동안 공물을 바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王希隆·楊代成의 논문 <清順康雍三朝對天山以南地方政權與地方勢力政策述評 — 以葉爾羌、哈密、吐魯番與清朝的互動關係爲中心>(《西域研究》, 2018年 第1期), 43-44쪽 참고.

花箋)을 사용하고 문장이 모두 중국의 것과 같았다. 아마도 민(閩)이나 월(粵) 지역 사람들이 대신 지어주는 것 같다.

<土魯番<sup>37)</sup>表文<sup>38)</sup>>

土魯番自順治十三年入貢,<sup>39)</sup> 至康熙十二年, 國王瑪墨忒賽伊忒韓<sup>40)</sup>復遣其臣兀魯和陞<sup>41)</sup>等獻馬, 其表略云: “土魯番國王某, 上言於乃聖乃仁天下治平皇帝陛下: 恭惟<sup>42)</sup>皇上一統攸同, 何異於古之占什特; 惠澤羣生, 相同乎昔之達刺汗; 法

37) 土魯番: 토로번(투루판)은 지금의 중국 新疆維吾爾自治區 吐魯番市로, 土爾番이라고도 한다. 토로번은 옛날 실크로드에서 동·서 문화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다. 漢代에는 天山 산맥에서 남하한 이란계 유목민 車師人이 지금의 토로번 북서쪽에 있는 交河를 수도로 하는 車師國을 세웠고, 이후 위구르족의 선조인 回鶻人이 세운 高昌國이 이곳을 합병하고, 수도를 高昌(지금의 토로번시 남동쪽)으로 정했다. 640년에 唐이 고창국을 멸망시켰고 宋代에는 회골인들이 거주하였으며, 元代에는 동차카타이칸국(1348~1509)의 지배를 받았다. 명대에 지방 정권을 세우면서 그 명칭을 토로번이라 하게 되었고, 이후 야르칸드 칸국(1514~1680)의 지배를 받다가 1678년에는 蒙古族 준가르에게 정복되었다. 청 乾隆 20년(1755)에 준가르를 평정하여 토로번을 청 왕조에 복속시키고 토로번 廳을 설치하였다.

38) 表文: 신하가 자신의 생각을 임금에게 적어 올리는 글이다.

39) 순치 13년에 토로번이 조공을 바친 기록은 《大清世祖章皇帝實錄》 卷101, 103과 《清史稿·地理志二十三》, 《清史稿·兵志十二》 등에 보인다. 이 기록들을 통해 당시 토로번 지역은 야르칸드칸국 阿布都拉哈汗의 지배 하에 있었고, 그들이 바친 주요 공물은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40) 瑪墨忒賽伊忒韓(?~?): 마목특새이특한은 당시 토로번 국왕의 이름을 漢語로 音譯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大清聖祖人皇帝實錄》 卷42, <康熙十二年五月癸未>에도 이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비슷하게 ‘吐魯番國王瑪墨忒賽伊忒汗’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강희 12년인 1673년 당시 토로번 지역은 야르칸드칸국(1514~1680)에 속해있었으므로, 마목특새이특한은 야르칸드칸국의 토로번 지역 통치자였던 巴拜(재위: 1653~1678) 또는 야르칸드칸국의 통치자 伊斯瑪業勒(재위: 1670~1680)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王希隆·楊代成的 논문 <清順康雍三朝對天山以南地方政權與地方勢力政策述評 — 以葉爾羌、哈密、吐魯番與清朝的互動關係爲中心> (《西域研究》, 2018年 第1期), 43-44쪽에서는 《清聖祖實錄》 卷42의 기록을 인용하며 강희 12년(1673)에 葉爾羌汗國(야르칸드칸국)의 賽伊特巴拜汗이 ‘瑪墨忒賽伊忒汗’이라는 이름으로 공물을 바쳤다고 하였다. 야르칸드칸국은 동차카타이칸국의 토로번 지배자 만수르칸의 셋째 아들인 사이드가 1514년에 세운 것으로, 1680년에 오이라트 몽고 준가르칸국(1676~1758)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준가르칸국은 이후 乾隆帝의 親征과 내부의 분란으로 인해 멸망하여 청에 복속되었다.

41) 兀魯和陞(?~?):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지복우담》의 기록을 통해 그가 강희 12년인 1673년에 토로번 국왕의 명을 받아 청에 사신으로 왔고, 강희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표문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清聖祖實錄》 卷42을 보면, ‘吐魯番國王瑪墨忒賽伊忒汗, 遣陪臣兀魯和陞等, 進表貢方物.’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이 ‘兀魯和陞’로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2) 恭惟: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紀軍威，比隆於楷黑塞勞；聰明格物，媲美乎伊思謙達爾。皇上睿知天錫，如日升之無不照；皇上撥亂<sup>43)</sup>爲治，如月恆<sup>44)</sup>之無不臨。旌旂<sup>45)</sup>閃爍，超越乎墨烏威爾<sup>46)</sup>；皇恩浩蕩，實出於度量寬仁。國祚無疆，而萬國咸寧；洪福靡際，而皇圖應運。” 後稱一千八十三年二月二十八日。予昔在禮部<sup>47)</sup> 見荷蘭<sup>48)</sup>暹羅<sup>49)</sup>琉球<sup>50)</sup>諸國表文，用金花箋<sup>51)</sup>，文義皆如中國，或謂是閩<sup>52)</sup>粵<sup>53)</sup>人代作也。<sup>54)</sup>

- 43) 撥亂: 난리를 평정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 44) 日升月恒: 해돋이와 달의 上弦처럼 세력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뜻으로, 날이 갈수록 융성하고 발전함을 의미한다.
- 45) 旌旂: 旗의 명칭은 매우 다양한데 정기는 모든 기의 총칭이다. 旌은 깃털로 된 표식으로 말단 부대에서 사용하였고, 기는 천으로 된 표식으로 상위 부대에서 사용하였다. 곱과 호랑이는 기에 그려지고 交龍은 旂에 그려져 두 글자를 본래 다르게 사용했지만 지금은 통용되고 있다. ‘旂’이라고도 쓰며, 군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 46) 이 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占什特, 達刺汗, 楷黑塞勞, 伊思謙達爾, 墨烏威爾 등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표문의 내용으로 유추해볼 때, 대개 옛 토로번(또는 투르크) 위인들의 이름 또는 직책을 한어로 음역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夏小超의 논문 《從契丹語借詞看契丹與外族的文化接觸》(內蒙古大學碩士論文, 2018), 42-43쪽에서는 《遼史》卷四十五 <百官志一>의 “麻普, 本名達刺汗, 會同元年改.”를 인용하여 “達刺汗(答刺罕)”이 돌궐어에서 차용된 거란어 관직명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 47) 연보의 기록에 따르면 왕사진은 강희 3년(1664)에 禮部主客司主事가 되어, 강희 7년(1668)에 儀制司員外郎으로 옮기기 전까지 예부에 있었다. 王士禎撰, 孫言誠 點校, 《王士禎年譜》(北京: 中華書局, 1992), 24-27쪽 참고.
- 48) 荷蘭: 하란은 네덜란드의 명칭 가운데 하나인 ‘Holland’를 漢譯하여 쓴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和蘭’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 49) 暹羅: 섬라는 ‘泰國(Thiland)’의 이전 명칭인 ‘시암(Siam)’을 음역하여 쓴 것이다. 중국의 隋·唐 시기에는 赤土國이었고 후에 羅斛과 暹 두 나라로 분리되었다가 합쳐져 暹羅斛國이라 하였다. 《明史》 등에 元·明 시기부터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으며, 《清史稿·列傳三百十五·屬國三》 등에 청대에는 순치 9년부터 섬라가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 50) 琉球: 유구는 동중국해 남단의 류큐 제도를 영토로 하였던 독립 국가로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沖繩) 현에 해당된다. 원래 류큐 제도에는 山南·中山·山北 3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15세기에 중산이 하나로 통일하였고 이를 琉球王國이라 한다. 유구는 이후 동남아시아와 일본, 조선 등과 교류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명에 조공을 바치고 무역독점권을 획득함으로써 동아시아 해상중개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번영하였다. 16세기에 들어서 해외무역은 줄어들었으나 중국과의 조공 무역 및 일본과의 무역은 계속되었다. 유구는 1609년에 일본 사쓰마 번(薩摩藩)의 침공을 받은 이후로 여러 차례 일본의 침략을 받다가 결국 1879년에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어 멸망하였다.
- 51) 金花箋: 금화전은 황실에서 사용하던 金花가 그려진 금빛 종이를 말한다.
- 52) 閩: 중국 福建省의 약칭이다.
- 53) 粵: 중국 廣東省의 약칭이다.
- 54) 余金の 《熙朝新語》, 卷四(《續修四庫全書》 1178,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2.4 <북악(北岳)에 대한 제사>

오악(五岳)에 대한 제사는 모두 그 산에서 지내지만 유독 항악(恆岳)만은 곡양(曲陽)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한(漢) 선제(宣帝) 신작(神爵) 원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항산은 실제로 혼원주(渾源州)에 있는데, 순(舜)임금이 산천(山川)에 제사를 지내고 북쪽으로 대무산(大茂山)에 이르렀을 때 큰 눈을 만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 떨어져 마침내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니 바로 지금의 곡양묘(曲陽廟)이다. 묘석(廟石)의 길이는 1장(丈)이 채 안 되고 넓이도 겨우 4척(尺) 여에 불과한데, 북양(濮陽) 사람인 시랑(侍郎) 곡원(穀原) 소우(蘇祐)는 석진(石晉) 이후 연운(燕雲)이 요(遼)에 함락되어 송대(宋代)에는 멀리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사기(史記)》·《한서(漢書)》·《당서(唐書)》의 글에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 있듯이 송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심존중(沈存中)은 《몽계필담(夢溪筆談)》에서 “북악을 대무산이라고 하는데, 반은 거란 땅에 속해있고 대무산 등성마루를 경계로 한다. 악사(岳祀)는 옛날에는 산 아래에 있었는데 석진 이후로 조금 더 가까운 안쪽으로 옮겼고, 지금 사당(祠堂)은 여전히 곡양에 있다.”라고 하였다. 소우의 말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명 홍치(弘治) 연간에 마단숙공(馬端肅公)이 일찍이 산에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 바꾸기를 청하였는데, 사안이 예부로 하달되었으나 결국 예문의공(倪文毅公)에 의해 저지되었다. 《남원만록(南園漫錄)》에 의하면 “예공의 부친 예겸(倪謙)이 일찍이 명을 받들어 곡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신에게 기도를 드리자 신이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 한 명을 가리켜 함께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공을 낳았고 이 일로 인해 공의 이름을 악(岳)이라 지었다. 이 때문에 제사 지내는 곳을 바꾸지 않으려 고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순치 17년(1660)에 황제께서 형과 급사중(刑科給事中) 점본성(粘本盛)의 청을 받아들여 곡양묘의 제사를 없애고 혼원에서 제사 지내게 하셨으니, 천 년간 이어져 온 잘못된 인습이 이때서야 비로소 바로잡히게 되었다.

<北岳<sup>55)</sup>祀典><sup>56)</sup>

五岳<sup>57)</sup>皆祭於山, 獨恆岳祭上曲陽<sup>58)</sup>, 自漢宣帝<sup>59)</sup>神爵元年<sup>60)</sup>始. 而恆山實在渾源州<sup>61)</sup>, 相傳舜望於山川<sup>62)</sup>, 北至大茂山<sup>63)</sup>, 大雪不能前, 有石飛墮, 遂祀

- 55) 北岳: 북악은 중국의 5대 名山을 뜻하는 五岳 가운데 하나인 恆山을 말한다. 太恒山이라고도 하는 恒山은 지금의 山西省 大同市 渾源縣 남쪽에 있으며, 道教의 主流인 全眞派의 聖地이다. 산 위에는 北岳廟가 있는데 이것은 북악으로 정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古廟를 개수한 것이다.
- 56) 중국에서 五岳에 대한 제사는 봉건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므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北岳에 대한 제사는 漢代 이래로 河北省 曲陽縣 북서쪽의 大茂山을 북악으로 삼아 곡양에서 제사를 지내오다가 명대에 山西省 渾源縣 남동쪽의 玄岳을 恆山으로 개칭하여 북악으로 정하였고, 청초인 1660년에 이르러서는 북악에 대한 제사를 혼원에서 지내게 되었다. 북악에 제사 지내는 곳을 이전하는 문제에 관해서 명에서 청에 이르기까지 크게 4차례에 걸쳐 논쟁이 진행되었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논쟁의 시작은 명 홍치 6년(1493) 兵部尙書 馬文升이 <請釐正祀典疏>를 올려 북악의 제사를 곡양에서 혼원으로 바꾸어 지낼 것을 주청하자, 당시 禮部尙書였던 倪燾이 <議改北嶽疏>를 지어 반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嘉靖 25년(1546) 戶部科臣 陳泰가 <題請正嶽祀>를 올려 이전을 주장한 것이다. 세 번째는 萬曆 14년(1586)에 山西巡撫 胡來貢이 제사를 혼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청하자 禮部禮臣 沈鯉가 <議改北嶽疏>를 올려 반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청 순치 17년(1660)에 刑科給事中 粘本盛이 <釐正恆山祭典疏> 올려 제사 이전을 주청한 것으로, 순치제가 결국 이를 받아들여 북악의 제사를 혼원으로 옮김으로써 오랜 논쟁이 일단락되게 되었다.
- 57) 五岳: 오악은 중국 5대 명산의 총칭이다. 고대 민간의 山神 숭배와 五行 관념, 제왕의 封禪 등이 결합된 산물로, 후에 道教에 의해 계승되어 도교의 명산으로 일컬어졌다. 오악은 다섯 방위에 따라 동쪽의 東岳 泰山(山東省, 약 1545m), 서쪽의 西岳 華山(陝西省, 약 2155m), 남쪽의 南岳 衡山(湖南省, 약 1300m), 북쪽의 北岳 恆山(山西省, 약 2016m), 중앙의 中岳 嵩山(河南省, 약 1492m)로 나뉜다. 오악은 봉건 제왕이 높고 큰 하늘의 공덕을 우리르고 封禪 祭祀를 지내던 곳으로, 특히 제왕이 하늘의 명을 받아 中原에 왕조를 건립하였음을 상징한다.
- 58) 曲陽: 곡양은 지금의 河北省 保定市에 속하는 곳으로 華北平原의 서쪽에 있으며 太行山의 동쪽 기슭에 위치한다.
- 59) 漢 宣帝: 한 선제는 西漢의 제10대 황제인 劉詢(기원전 91~49)이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74년에서 기원전 49년이며, 本始(기원전 73~70), 地節(기원전 69~66), 元康(기원전 65~62), 神爵(기원전 61~58), 五鳳(기원전 57~54), 甘露(기원전 53~50), 黃龍(기원전 49) 등 모두 7개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름은 劉病已이고 漢 武帝 劉徹의 曾孫이다. 선제는 역사상 유명한 賢君으로 재위 기간 동안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었으며, 경제를 번영시키고 이민족들을 복속시켜 역사서에 '孝宣之治' 또는 '孝宣中興'으로 기록되었다. 선제는 黃龍 元年(기원전 49)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 杜陵에 묻혔으며, 廟號는 中宗이다.
- 60) 神爵 元年: 신작은 한 선제의 4번째 연호로 기원전 61년에서 기원전 58년까지 사용되었다. 따라서 신작 원년은 기원전 61년이다.
- 61) 渾源州: 혼원주는 지금의 山西省 大同市 渾源縣의 옛 이름으로, 境內에 恆山이 있다. 혼원은 西漢 때 처음 설치되었는데, 渾河의 發源地가 경내에 있기 때문에 혼원이라는 이름을

焉,<sup>64)</sup> 卽今曲陽廟.<sup>65)</sup> 廟石長不滿丈, 闊僅四尺餘, 濮陽<sup>66)</sup>蘇穀原<sup>67)</sup> 〔祐〕侍郎

붙인 것이다. 金 貞祐 2년(1215)에 처음 혼원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元初에 이름을 恒陰縣으로 바꾸어 西京(즉 大同)에 속하도록 하였으나 혼원주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하였다. 명청 시기에도 혼원주라고 하였으며 大同府에 속하였다. 民國 원년(1912)에 명칭을 혼원현으로 바꾸었다.

- 62) 望은 山川을 멀리서 바라보며 제사하는 것으로, 《尚書·虞書·舜典》에 “歲二月東巡守, 至於岱宗, 柴, 望秩於山川. ……十有一月朔巡狩, 至于北岳, 如西禮. 歸, 格于藝圃, 用特.”이라 하여 순임금이 五岳에서 산천에 망제사를 지낸 것이 기록되어 있다. 《史記·封禪書》에서도 이 부분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 63) 大茂山: 대무산은 옛 北岳인 恒山이다. 역사서에 恒山은 曲陽縣 서북쪽에 있으며 主峰이 대무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곡양현에 지어진 北岳廟는 역대 제왕들이 북악인 恒山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漢 文帝 때 避諱하여 恒山의 이름을 常山으로 바꾸었고, 漢 武帝 때 河北 曲陽縣에 北岳祀를 세워 제사를 지냈다. 漢 宣帝 神爵 원년(기원전 61년)에 五岳을 봉하면서 恒山을 북악으로 정하였다. 北魏 宣武帝 때 처음으로 대무산의 남쪽에 있는 곡양현에 북악묘를 세웠고 그 후부터 이 북악묘에서 멀리 북악의 제사를 지냈다. 명대에 이르러 북악을 山西省 渾源 縣내의 恒山으로 바꾸면서 그 지위를 상실했고, 청 순치 17년(1660)부터는 북악에 대한 제사를 산서 혼원의 恒山에서 지냈다.
- 64) 북악 제사 이전에 관한 논쟁의 시작이 되었던 명 홍치 6년(1493)에 兵部尚書 馬文升이 북악의 제사를 山西 渾源에서 지낼 것을 주청하며 올린 <請釐正祀典疏>에서 “俗傳有飛來石之說”이라고 하여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顧炎武는 <北嶽辨>을 써서 恒山에 대한 역대 사서 및 경전들의 기록을 모아 수록함으로써 북악 제사의 유래와 변천에 대해 정리하고, 마문승의 소를 인용하며 그가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언급하였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後人知其不通, 乃更爲之說云: 舜北狩, 大雪, 止於曲陽. 有石飛來, 因而望祀. 不知此誰見之而誰傳之? 蓋又文升之蛇足也.) 또한 세 번째 논쟁이 있었던 萬曆 14년(1586)에 巡撫 胡來貢이 제사를 혼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청한 것에 반대하여 禮部禮臣 沈鯉가 지어 올렸던 <議改北嶽疏>에서도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다. “……臣等謹查得《渾源州志》, 內開恒山在州南二十裏, 古北嶽也. 上有嶽廟, 陶唐氏所建. 舜時, 北巡狩至於北嶽, 值大雪, 遙祀之, 飛一石墜帝前, 名曰‘安玉石’, 乃建廟於大茂山. 又五載, 再巡狩, 其石又飛於曲陽, 復建廟於曲陽. 今州之恒山有觀, 乃唐武德中道士高明素所建也. 又有洪武十二年重修古北嶽廟碑, 文內載渾源恒山爲古北嶽, 自有虞氏歲十二月, 北巡狩躬行望祀. 後飛石東遷, 卒建祠於曲陽, 歷代因之. ……”(沈鯉, 《亦玉堂稿》, 卷2) 한편 沈鯉의 이 문장은 문집 외에 《明文海》 卷60과 《(雍正)山西通志》, 卷187 등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산서통지》에 수록된 문장에서는 ‘自有虞氏歲十二月, 巡狩躬行望祀’가 ‘自有虞氏歲十一月, 巡狩躬行望祀’로 되어 있어 문집 및 《명문해》에 수록된 문장과 다르다. 참고로 《書經·虞書·舜典》에서는 ‘十有一月朔巡狩, 至于北岳’으로 되어 있다.(《지복우담》에서는 북악의 ‘악’을 ‘岳’으로 쓰고 있는데, 고염무와 심리의 문장에서는 ‘岳’의 통용자인 ‘嶽’을 썼으므로 문고에서는 각각의 원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 65) 曲陽廟: 곡양묘는 曲陽縣 城內에 세워진 北岳廟를 말한다. 南北朝시대 北魏 宣武帝 景明·正始 연간에 처음 세워져 漢代부터 청 순치 17년(1660)까지 역대 제왕들이 이곳에서 북악 恒山의 제사를 지냈다.
- 66) 濮陽: 북양은 河南省 東北部 黃河 하류의 平原 지역에 있다. 북양의 옛 명칭은 帝丘인데, 이는 五帝의 한 사람인 顓頊이 이곳을 도읍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북양이라는 이름은 戰國時代에 처음 생겨났고, 濮水의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붙여졌다.
- 67) 蘇穀原: 소곡원은 명대의 문학가이자 관리였던 蘇祐(1493~1573)를 말한다. 소우의 자는

疑石晉<sup>68</sup>)後燕<sup>69</sup>)陷遼, 宋遂遙祀於此. 然《史》《漢》《唐書》之文<sup>70</sup>)明甚, 不始宋也. 沈存中<sup>71</sup>)《筆談》<sup>72</sup>)云: “北岳謂之大茂山, 半屬契丹, 以大茂脊爲界.

尤吉 또는 舜澤이고 별호는 穀原이다. 蒙古族으로 東昌府 濮州(지금의 河南省 濮陽市 範縣 濮城鎮) 사람이다. 嘉靖 4년(1526)에 진사가 되어 廣東道御史에 임명되었고 이후 관직이 兵部尙書에까지 이르렀다. 체구가 크고 흰칠하여 장수와 같은 재주를 지녔고 詩文으로도 이름을 날리는 등 文武에 모두 뛰어났다. 저서로 《孫子集解》, 《三關紀要》, 《法家剖集》, 《穀原詩文草》, 《雲中紀要》 등이 전해진다.

- 68) 石晉: 석진은 중국 五代十國時期 後晉(936~947)의 별칭이다. 936년에 高祖 石敬瑭(892~942)이 後唐을 멸망시키고 후진을 건국하였기 때문에 석진이라 한 것이다. 후당 淸泰 3년(936) 여름에 석경당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遼의 황제 耶律德光을 아버지의 예로 모시겠다고 하며 燕雲 16州的 땅을 대가로 바치고 왕위에 올라 국호를 진이라 하고 후당을 멸망시켰다. 처음에는 洛陽(지금의 河南省 洛陽市)을 도읍으로 하였다가 후에 南京(지금의 河南省 開封市)으로 천도하였으며, 947년에 요에 의해 멸망했다.
- 69) 燕雲: 五代十國時期 後晉의 건국자인 石敬瑭이 後唐을 멸망시키기 위해 遼에 군사 원조를 요청하며 그 대가로 할양한 長城 以南의 河北·山西 일대 16개 주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보통 ‘燕雲 16州’라 칭한다. 연운이라는 명칭은 이 16개 주 가운데 대표 지역인 燕州(또는 幽州, 지금의 北京)과 雲州(지금의 山西省 大同)에서 따온 것이다. 요는 연운 16주를 획득한 후, 연주와 운주에 각각 南京과 西京을 설치하여 이 지역을 통치하였다. 5대의 後周와 宋代에 여러 번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송이 金과 연합하여 일부 지역을 회복했다가 1127년에 金의 공격을 피해 수도를 臨安(지금의 浙江省 杭州)으로 옮기면서 이 지역은 金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 70) 《史記》·《漢書》·《唐書》의 관련 문장은 다음과 같다. 《史記·孝武本紀》: 常山王有罪, 遷. 天子封其弟於眞定, 以續先王祀, 而以常山爲郡. 然後五嶽皆在天子之邦. / 《漢書·郊祀志下》: 北嶽常山於上曲陽. / 《新唐書·地理志》: 曲陽, 上. 本恒陽, 元和十五年更名, 是年, 又更恒嶽曰鎮嶽, 有嶽祠.
- 71) 沈存中: 심존중은 北宋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였던 沈括(1031~1095)을 말한다. 심괄의 자는 存中이고 호는 夢溪丈人 또는 夢溪翁이며, 浙江省 杭州 錢塘縣 사람이다. 嘉祐 8년(1063)에 진사에 급제하여 揚州司理參軍이 되었다. 神宗 때 熙寧變法에 참여하여 王安石의 신임을 얻었고 이후 太子中允, 檢正中書刑房, 提舉司天監, 史館檢計, 三司使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당시 송은 북쪽에서 遼의 압박을 받았는데, 1075년에 요에 파견되어 국경선 설정에 대해 공을 세웠으며 상세한 지도를 작성했다. 元豐 3년(1080)에 延州知州 겸 鄜延路經略安撫使가 되어 변경을 지키고 西夏를 막아내었는데, 후에 永樂城에서의 전투로 인해 폄적되었다. 晚年에는 潤州(지금의 江蘇省 鎮江)으로 거처를 옮겨 夢溪園에 은거하였고, 紹聖 2년(1095)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심괄은 매우 박학했으며 특히 天文·수학·지리·本草 등 과학에 밝아서 司天監으로 있을 때 천체관측법과 曆法 등을 창안하기도 하였다. 대표작인 《夢溪筆談》 외에 의학·과학·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저술을 남겼다.
- 72) 《筆談》: 沈括의 대표작인 《夢溪筆談》을 말한다. 집필 시기는 대략 1086년에서 1093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심괄이 말년을 보낸 潤州의 夢溪園이라는 정원에서 손님과 나누는 대화를 기록했다고 해서 제목을 《몽계필담》이라 했다고 한다. 《몽계필담》에는 나침반·역법에 대한 최초의 설명이 있으며, 화석의 기원 등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설명을 했다. 또한 천문·산학·지도제작법·광학·약학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괄 자신의 관찰을 기록하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元 大德刻本 《몽계필담》인

岳祠舊在山下，石晉之後稍遷近內，今祠乃在曲陽。”云云。蘇說本此也。明弘治中，馬端肅公<sup>73)</sup>曾請改祠於山，事下禮部，竟格於倪文毅公。<sup>74)75)</sup>按《南園漫錄》<sup>76)</sup>云：“倪公父謙<sup>77)</sup>，常奉命祀曲陽，禱於神，神指旁侍一人與之，遂生公，因名岳。以是固執不肯改祀。”云。<sup>78)</sup>順治十七年，上允刑科給事中<sup>79)</sup>粘本盛<sup>80)</sup>之請，罷曲陽廟

대, 《筆談》 26卷, 《補筆談》 3卷, 《續筆談》 1卷으로 전체 30卷이며, 17目 609條으로 이루어져 있다.

- 73) 馬端肅公: 명대의 정치가이자 詩人인 馬文升(1426~1510)을 말한다. 마문승의 자는 負圖, 별호는 約齋 또는 三峰居士, 友松道人이며 鈞州(지금의 河南省 禹州市) 사람이다. 景泰 2년(1451)에 진사에 급제하여 御史가 되었고, 福建按察使, 左副都御史, 兵部右侍郎, 遼東巡撫, 右都御史, 總督漕運 등의 관직을 거쳐 弘治 初에는 兵部尙書와 吏部尙書 등을 역임하였다. 正德 4년(1509)에 權宦 劉瑾에 의해 삭탈 관직되었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복위되어 光祿大夫·太傅로 추증되고 '端肅'이라는 諡號를 받았으며, 左柱國·太師 등으로 추증되었다.
- 74) 倪文毅公: 예문의공은 명대의 大臣 倪嶽(1444~1501)이다. 예약의 자는 舜咨이고 南直隸 應天府 上元(지금의 江蘇省 南京) 사람으로 祖籍은 浙江 錢塘이다. 倪謙의 아들이다. 天順 8년(1464)에 진사에 급제하여 編修가 되었고, 成化 연간에는 禮部右侍郎을 지냈으며 洪치 연간에는 禮部尙書와 吏部尙書 등을 지냈다. 저서로 《靑溪漫稿》가 있다.
- 75) 당시 禮部尙書였던 倪嶽은 馬文升의 <請釐正祀典疏>에 맞서 <議改北嶽疏>를 지어 올렸다.
- 76) 《南園漫錄》: 명대 張志淳(1457~1538)이 편찬한 雜史이다. 장지순의 自號는 南園野人이고 江寧(지금의 江蘇省 南京) 사람이다. 《남원만록》은 대략 嘉靖 5년(1526)에 지어진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明史 연구, 특히 雲南 지방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 77) 倪謙(1415~1479): 자는 克讓이고 호는 靜存이며 南直隸 應天府 上元 사람이다. 正統 4년(1439) 진사로 編修를 제수받았고 朝鮮으로 使行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天順 初에 學士가 되어 太子를 모셨고, 천순 3년에는 順天 鄉試를 주관하기도 하였는데 권세 있는 집안의 자식을 떨어뜨렸다가 무고하게 죄를 입고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成化 초에 복직되어 아들인 倪嶽과 함께 《英宗實錄》을 편수하였고, 관직이 南京 禮部尙書까지 올랐다. 사후 太子少保로 追贈되고 文僖라는 諡號를 받았다. 저서로 《朝鮮紀事》, 《遼海編》, 《倪文僖公集》 등이 전해진다.
- 78) 《明史·列傳第七十一》에도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父謙, 奉命祀北嶽, 母夢緋衣神入室, 生嶽, 遂以爲名.”
- 79) 刑科給事中: 명칭 시기 刑科의 하급관리로 명 洪武 6년(1373)에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관리 2명을 두고 품계는 정7품으로 하였는데 이후 여러 차례 인원과 품계가 바뀌었다. 청대에는 순치 연간에 漢族 2명을 두었다가 강희 4년(1665)에는 만주족과 한족 각 1명씩 두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품계는 종7품이었다. 이후 雍正 7년(1729)에는 품계가 정5품으로 올랐다.
- 80) 粘本盛(?~?): 점본성의 자는 道恒 또는 質公으로 福建省 晉江(지금의 福建省 晉江市) 사람이다. 명 승정 12년(1639) 舉人으로, 청대에 5科的 給事中을 모두 역임하며 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관해 50여 차례의 상소를 올렸다. 67세에 세상을 떠났으며, 《歷代理學淵源像贊》, 《導養忠孝全書》, 《天中理牘》, 《演試日記》, 《演試詩草》, 《道養全書》 등의 저서를 남겼다.

祀, 祀渾源, 千年因循之訛, 至是始釐正焉.<sup>81)</sup>

## 2.5 <앵무를 물리치시다>

강희 2년(1663)에 서쪽 변경의 장수 아무개가 황금색 앵무를 얻어 황금으로 새장을 만들었다. 황제께 올리자 황제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시고 엄히 타일러 경계하셨다.

<却鸚鵡>

康熙二年, 西邊大帥某得黃鸚鵡, 以黃金作籠. 表上, 上却其獻, 嚴飭之.

## 2.6 <제주(祭酒)<sup>82)</sup> 명단>

최초에 제주를 설치해 만주인 한 명, 몽고인 한 명, 한인(漢人) 한 명을 두었다. 순치 17년(1660)에 몽고인 제주를 없앴다. 만주인 제주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아마우(姑兒馬叻) 【순치 원년부터 강희 4년 7월까지 총 22년간 말음】 · 아도리(阿都里) 【4년부터 7년 6월까지, 죽기 전까지 직위를 말음】 · 가록(賈祿) 【7년부터 12년 4월까지 말았고 이부원의랑吏部員外郎으로 좌천됨】 · 의창아(宜昌阿) 【12년부터 17년 2월까지 말았고 승진하여 첨사부첨사詹事府詹事를 말음】 · 아례호(阿禮瑚) 【17년부터 22년까지 말았고 성경盛京

81) 《熙朝新語》 卷1 16~17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82) 祭酒: 고대 중국에서 연회를 베풀 때 祭神에게 술을 따르던 자를 祭酒라 불렀다. 나중에는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이를 가리켰으며 漢魏 이후에는 관직으로 만들어졌다. 현대에는 博士의 수장을 박사제주라 했고 西晉시기는 國子祭酒가 있었으며 隋唐 이후에는 國子監의 主管官을 국자감제주라고 하였는데, 청말에 폐지되었다. 청대 국자감제주는 종4품에 속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우리말에서 祭酒는 '채주'라 발음하며 조선시대 성균관에 속하는 정삼품 벼슬을 말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祭酒는 중국의 고대 관직 이기에 이를 따르지 않고 '제주'로 표기하였다.

형부시랑刑部侍郎으로 승진함] . 한인 제주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약림(李若琳) 【천계 임술년 진사, 순천順天 대흥大興 사람】 · 설소온(薛所蘊) 【송정 무진년 진사, 하남河南 맹현孟縣 사람】 · 호통우(胡統虞) 【송정 계미년 진사, 호광湖廣 무릉武陵 사람】 · 고흥(高珩) 【계미년 진사, 산동 치천淄川 사람】 · 이정양(李呈樣) 【계미년 진사, 산동 점화霑化 사람】 · 왕송간(王崇簡) 【계미년 진사, 순천 완평宛平 사람, 시호는 문정文貞】 · 이석당(李奭棠) 【순치 병술년 회원會元 급제자, 순천 대흥 사람】 · 단약로(單若魯) 【병술년 진사, 산동 고밀高密 사람】 · 사징(沙澄) 【병술년 진사, 산동 봉래蓬萊 사람】 · 풍부(馮溥) 【정해년 진사, 산동 임구臨朐 사람으로, 재상에 임명되었으며 시호는 문의文毅】 · 오위업(吳偉業) 【송정 신미년 진사, 회원 급제자, 강남江南 태창太倉 사람】 · 장사건(張士甄) 【기축년 진사, 순천 통주通州 사람】 · 김횡(金鉉) 【임진년 진사, 순천 대흥 사람】 · 장운로(章雲鷺) 【정해년 진사, 순천 완평 사람】 · 웅백룡(熊伯龍) 【기축년 진사, 호광 한양漢陽 사람】 · 이중백(李中白) 【정해년 진사, 산서山西 장자長子 사람】 · 이의고(李儀古) 【기축년 진사, 직례 임구任丘 사람】 · 기여즙(綦汝楫) 【을미년 진사, 산동 고밀 사람】 · 진애영(陳鼗永) 【을미년 진사, 절강 해녕海寧 사람, 시호는 문안文安】 · 단약로(單若魯) 【재임용됨】 · 웅백룡(熊伯龍) 【재임용됨】 . 왕수재(王守才) 【기인旗人으로서, 이때 관제가 바뀌어 한군漢軍 한인漢人이 통용되었는데 후에 폐지되었음】 · 송덕의(宋德宜) 【을미년 진사, 강남 장주長洲 사람, 재상에 임명되었고 시호는 문각文恪】 · 이선근(李仙根) 【신축년 진사 급제자, 사천四川 수녕遂寧 사람】 · 양정중(楊正中) 【무술년 진사, 순천 통주通州 사람】 · 서원문(徐元文) 【기해년 장원 급제자, 강남 곤산崑山 사람, 재상에 임명되었음】 · 심전(沈荃) 【임진년 진사 급제자, 강남 화정華亭 사람】 · 풍원제(馮源濟) 【을미년 진사, 순천 탁주涿州 사람】 · 왕사진(王士禎) 【을미년 공사貢士이고 무술년 진사, 산동 신성新城 사람】 · 이원진(李元振) 【신축년 공사이고 갑진년 진사 급제자, 하남河南 자성柘城 사람】 · 웅숙원(翁叔元) 【병진년 진사 급제자, 강남 상숙常熟 사람】 · 조화(曹禾) 【갑진년 진사, 강남 강

음江陰 사람] · 왕빈(汪霖) 【병진년 진사, 절강 전당錢塘 사람】 · 오원(吳苑) 【임술년 진사, 강남 섭현歙縣 사람】 · 장용단(張榕端) 【병진년 진사, 하남 자주磁州 사람】 · 손악반(孫岳頒) 【임술년 진사, 강남 오현吳縣 사람】 .

<祭酒題名>

國初設祭酒, 滿洲一員, 蒙古一員, 漢人一員. 順治十七年, 裁去蒙古祭酒. 其滿洲祭酒題名: 姑兒馬吽 【起順治元年, 迄康熙四年七月, 凡二十二年】<sup>83)</sup>, 阿都里 【起四年, 迄七年六月, 卒於位】<sup>84)</sup>, 賈祿 【起七年, 迄十二年四月, 左遷吏部員外郎】<sup>85)</sup>, 宜昌阿 【起十二年, 迄十七年二月, 陞詹事府詹事】<sup>86)</sup>, 阿禮瑚 【起十七年, 迄二十二年, 陞盛京刑部侍郎】<sup>87)</sup>. 漢祭酒題名: 李若琳 【天啓壬戌進士, 順天大興人】<sup>88)</sup>, 薛所蘊 【崇禎戊辰進士, 河南孟縣人】<sup>89)</sup>, 胡統虞 【崇禎癸未

---

83) 姑兒馬吽(?~?): 고아마우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순치 원년 甲申(1644)부터 강희 4년 乙巳(1665)까지 제주를 맡았다. 이외에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들은 대체로 자세한 생애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청대 몽고족 학자인 法式善(1753~1812)의 《陶廬雜錄》 권2에서 國子監大臣 명단을 적어놓았기에 본문의 내용과 비교·참조해볼 만하다. 이후 본고에서 인용하는 《도려잡록》 권2는 中華書局에서 나온 1959년본의 44쪽~54쪽을 참조한 것이다.

84) 阿都里(?~?): 아도리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도려잡록》의 기록에 의하면 아도리는 鑲白旗 출신으로 강희 4년(1665)에 제주를 맡았다.

85) 賈祿(?~?): 가록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도려잡록》의 기록에 의하면 가록은 鑲白旗 출신으로 강희 8년(1669)에 제주를 맡았다.

86) 宜昌阿(?~?): 의창아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문과 《도려잡록》의 기록에 의하면 의창아는 鑲白旗 출신으로 강희 12년(1673)에 제주를 맡았다. 詹事府는 명칭 중앙기구의 하나로 명 洪武 연간에 설치되었다. 청대 칙사부는 명대를 계승하여 주로 황태자나 황제의 내무를 맡았다. 칙사부 안에는 詹事와 少詹事 같은 관직을 두었다. 청대의 칙사는 정3품에 해당하고 만주인과 한인을 각각 한 명씩 두었으며, 소첨사는 정4품에 해당하고 역시 만주인과 한인을 각각 한 명씩 두었다.

87) 阿禮瑚(?~?): 아례호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도려잡록》에 의하면 아례호는 鑲白旗 출신으로 강희 19년(1680)에 제주를 맡았다. 盛京은 1625년부터 1644년까지 청조의 도성으로 지금의 遼寧省 沈陽市이다.

88) 李若琳(?~1651): 명말 청초의 관리로, 《貳臣傳》 乙編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천계 임술년, 즉 천계 2년(1622)에 진사가 되었고 순치 원년(1644)에 제주를 맡았다. 順天 大興은 지금의 北京市에 속한다.

89) 薛所蘊(1600~1667): 자는 子展이고 호는 行屋으로, 승정 원년인 무진년(1628)에 진사가 되었고 순치 원년(1644)에 司業을 맡았으며 이어 순치 5년(1648)에 제주를 맡았다. 詩文을 잘 지어 《惇庵集》과 《澹友軒集》같은 저작을 남겼다.

進士, 湖廣武陵人】<sup>90)</sup>, 高珩【癸未進士, 山東淄川人】<sup>91)</sup>, 李呈樣【癸未進士, 山東霑化人】<sup>92)</sup>, 王崇簡【癸未進士, 順天宛平人, 諡文貞】<sup>93)</sup>, 李奭棠【順治丙戌會元及第, 順天大興人】<sup>94)</sup>, 單若魯【丙戌進士, 山東高密人】<sup>95)</sup>, 沙澄【丙戌進士, 山東蓬萊人】<sup>96)</sup>, 馮溥【丁亥進士, 山東臨朐人, 拜相, 諡文毅】<sup>97)</sup>, 吳偉業【崇禎辛未進士, 會元及第, 江南太倉人】<sup>98)</sup>, 張士甄【己丑進士, 順天通州

- 90) 胡統虞(1604~1652): 자는 孝緒이고 호는 此菴으로, 湖南 常德府 武陵縣(지금의 湖南省 常德市) 사람이다. 명말의 성리학자이자 관리로, 승정 16년인 계미년(1643)에 진사가 되었다. 청초가 들어선 뒤 순치 5년(1648)에 제주를 맡았으며 이후에도 秘書院學士 같은 관직을 맡았다. 《도려잡록》 권2에서는 호통우의 출신을 江南 當塗로 기록하였다.
- 91) 高珩(1612~1697): 자는 蕙佩이고 호는 念東이다. 승정 16년 계미년(1643)에 진사가 되었고 翰林院庶吉士로 선발되었다. 순치 때 秘書院檢討를 맡은 뒤 6년(1649)에 제주로 승진하였으며 이후 吏部左侍郎과 刑部左侍郎 같은 관직을 지냈다.
- 92) 李呈樣(?~?): 이정양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문과 《도려잡록》 권2의 기록에 의하면 이정양은 승정 16년인 계미년(1643)에 진사가 되었고 순치 8년(1651)에 제주를 맡았다.
- 93) 王崇簡(1602~1678): 자는 敬哉로 順天府 宛平 사람이다. 승정 16년인 계미년(1643)에 진사가 되었다. 순치 3년(1646)에 內翰林國史院 庶吉士로 임명되었고 순치 7년(1650)에 제주를 비롯하여 이후 秘書院檢討·弘文院侍讀學士·詹事府少詹事·吏部侍郎·禮部尙書·太子太保와 같은 관직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文貞이며 저서로 《靑箱堂文集》과 《靑箱堂詩集》이 전해진다. 《지북우담·담고 1》의 제14편 <父子尙書>에 “宛平王公崇簡, 以太子太保禮部尙書致仕.”라 기록하였다.
- 94) 李奭棠(?~1667): 자는 貳公으로 順天 大興 사람이다. 본적은 嘉定으로 순치 3년인 병술년(1646)에 探花로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다. 이 해에 진사는 一甲 3명, 二甲 77명, 三甲 293명으로 총 373명이 뽑혔다. 이후 이석당은 內翰林國史院 編修를 맡았다가 순치 9년(1652)에 제주가 되었다. 10년에 少詹事로 발탁되었고 侍講學士를 겸하였다. 11년 詹事府詹事로 승진하였고 또 國史院學士를 맡았다. 14년에 禮部左侍郎을 맡았고 17년에 건강이 악화되어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강희 6년 6월에 세상을 떠났으며 이때의 관직은 尙書였다. 이석당의 저서로는 《雅齋》가 있다.
- 95) 單若魯(?~?): 자는 拙庵으로, 명말의 진사 單明詡의 아들이다. 순치 3년인 병술년(1646)에 三甲 第1名으로 진사가 되었고 庶吉士로 뽑혔으며 훗날 제주에까지 올랐다. 《도려잡록》 권2에 보면 단약로는 순치 9년(1652)에 司業을, 강희 10년(1671)에 제주를 맡았다고 기록하였다.
- 96) 沙澄(?~?): 사징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문과 《도려잡록》 권2의 기록에 따르면 사징은 순치 3년인 병술년(1646)에 진사가 되었고 16년인 기해년(1659)에 제주를 맡았다. 《淸朝進士題名錄》에 의하면 병술과에서 사징은 3갑 제212명이었다.
- 97) 馮溥(1609~1691): 자는 孔博이고 호는 易齋이며 시호는 文毅이다. 순치 4년 정해년(1647)에 2갑 제11명으로 진사가 되었다. 이 해에 진사는 1갑 3명, 2갑 57명, 3갑 238명으로 모두 298명이었다. 처음에는 編修를 맡았다가 나중에 吏部侍郎에 발탁되었다. 강희 연간에 刑部尙書·文章殿大學士·太子太傅와 같은 관직을 역임하였다. 제주를 맡은 건 순치 11년인 갑오년(1654)이다. 저서로는 《佳山堂集》이 있는데 王士禛(1634~1711)과 陳維崧(1625~1682) 등 십여 명의 문인이 序文을 적어주어 풍부의 문풍을 칭찬하였다.

人】99), 金鉉【壬辰進士, 順天大興人】100), 章雲鷺【丁亥進士, 順天宛平人】101), 熊伯龍【己丑進士及第, 湖廣漢陽人】102), 李中白【丁亥進士, 山西長子人】103), 李儀古【己丑進士, 直隸任丘人】104), 綦汝楫【乙未進士, 山東高密人】105), 陳黻永【乙未進士, 浙江海寧人, 諡文安】106), 單若魯【補任】107),

98) 吳偉業(1609~1672): 자는駿公이고 호는梅村이며江蘇太倉사람이다. 승정 4년인 신미년(1631)에 진사가 되었고翰林院編修, 左庶子和 같은 관직을 거쳤다. 순치 10년(1653)에 秘書院侍講이 되었고 그 후 13년(1656)에 제주로 승진하였는데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간 뒤 다시 벼슬을 하지 않았다. 오위업은 錢謙益(1582~1664), 龔鼎孳(1616~1673)와 함께 '江左三大家'라 불리며 婁東詩派의 창시자이다. 7言 歌行을 잘 지었는데 훗날 사람들은 그의 詩體를 '梅村體'라 불렀다. 저서로는 傳奇 《林陵春》과 잡극 《通天臺》·《臨春閣》을 비롯하여 《梅村家藏稿》·《梅村詩餘》 등이 있다.

99) 張士甄(?~?): 순치 6년인 기축년(1649)에 2갑 제65명으로 진사가 되었다. 이 해에 진사는 1갑 3명, 2갑 77명, 3갑 315명으로 모두 395명이었다. 이후 14년(1657)에 제주를 맡았다. 문장과 서법에 뛰어나 翰林院庶常館이 되어 3년간 공부한 뒤 한림원 編修가 되었다. 또 刑部尙書·禮部尙書·吏部尙書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나이가 들어 병으로 사직하고 70세에 사망하였다.

100) 金鉉(?~?): 순치 9년인 임진년(1652)에 2갑 제74명으로 진사가 되었다. 이 해 진사는 1갑 3명, 2갑 77명, 3갑 317명으로 모두 397명이었다. 이후 15년(1658)에 제주를 맡았으며 강희 22년(1683)에 福建巡撫가 되어 복건 지역의 군사를 담당하였다. 본문에는 김희의 출신지를 順天 大興으로 기록하였는데 《도려잡록》 권2와 《청조진사제명록》에는 順天 宛平으로 기록하였다.

101) 章雲鷺(?~?): 장운로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문과 《도려잡록》 권2의 기록에 따르면 장운로는 순치 4년인 정해년(1647)에 3갑 제66명으로 진사가 되었고 이후 16년(1659)에 제주를 맡았다.

102) 熊伯龍(1616~1669): 자는漢侯이고 호는塞齋, 별호는鍾陵이며漢陽(지금의湖北省武漢市) 출신이다. 순치 5년(1648)에 順天鄉試 급제자가 되었고 6년인 기축년(1649)에 1갑 榜眼으로 진사가 되었으며 國史院編修·侍讀·內閣學士 겸 禮部侍郎과 같은 관직을 역임하였다. 제주를 맡은 건 순치 16년(1659)이며 강희 6년(1667)에 재임하였다. 저서로 《無何集》과 《熊學士詩文集》이 있다. 웅백룡에 관한 기록은 《지북우담·담고 1》의 제18편 <戊子北榜三及第>과 제19편 <甲午浙榜三狀元>에도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권운영·김숙향·김희경, <《池北偶談》 卷1 <談故 1>의 번역과 주해(2)> (《中國語文論譯叢刊》 第43輯, 2019), 414-415쪽 참고.

103) 李中白(?~?): 이중백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자는繪先으로 순치 4년 정해년(1647)에 3갑 제54명으로 진사가 되었다. 강희 원년(1662)에 제주를 맡았고 후에 관직이 侍讀學士에까지 이르렀다.

104) 李儀古(?~?): 이의고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문과 《도려잡록》 권2의 기록에 의하면 이의고는 순치 6년인 기축년(1649)에 진사가 되었고 강희 2년(1663)에 제주를 맡았다. 《청조진사제명록》에 의하면 기축과에서 이의고는 3갑 제176명이었다.

105) 綦汝楫(1636~?): 자는松友이고 호는膠崖이다. 순치 12년(1655)인 을미년에 榜眼으로 진사가 되었고 강희 2년(1663)에 제주를 맡았으며 이후 관직이 內秘書院 侍讀大學士에까지 이르렀다. 시를 잘 지었는데 특히 五言 近體詩가 뛰어났고 서에도 출중하였다.

熊伯龍【補任】<sup>108)</sup>, 王守才【旗人, 時更易官制, 漢軍漢人通用, 後停】<sup>109)</sup>. 宋德宜【乙未進士, 江南長洲人, 拜相, 諡文恪】<sup>110)</sup>, 李仙根【辛丑進士及第, 四川遂寧人】<sup>111)</sup>, 楊正中【戊戌進士, 順天通州人】<sup>112)</sup>, 徐元文【己亥狀元及第, 江南崑山人, 拜相】<sup>113)</sup>, 沈荃【壬辰進士及第, 江南華亭人】<sup>114)</sup>, 馮源濟【乙未進

저서로 《四友堂詩稿》가 있다.

- 106) 陳鼐永(?~?): 진애영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문과 《도려잡록》 권2의 기록에 의하면 진애영은 순치 12년인 을미년(1655)에 진사가 되었고 강희 3년(1664)에 제주를 맡았다. 또한 《지북우담·담고 1》의 제8편 <復內閣>에 “陳鼐永爲東閣學士……俱兼禮部侍郎.”이라 기록하였다. 을미년에 진사는 1갑 3명, 2갑 77명, 3갑 319명으로 모두 399명이었다. 진애영은 3갑의 제43명이었다.
- 107) 주석 95번 참조.
- 108) 주석 102번 참조.
- 109) 王守才(?~?): 왕수재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도려잡록》 권2의 기록에 의하면 왕수재는 漢軍 鑲紅旗 출신으로 강희 6년(1667)에 제주를 맡았다고 한다. 청나라의 군사·행정제도는 八旗라 하는데, 努兒哈赤(1559~1626)가 여진족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만든 만주족 사회제도에서 시작되었다. 팔기는 기존의 正紅旗·正黃旗·正白旗·正藍旗에, 황색기, 백색기, 남색기에 붉은 색의 테를 두른 鑲黃旗·鑲白旗·鑲藍旗와 백색의 테를 두른 鑲紅旗로 구성되었다. 旗人은 팔기군의 구성원을 이르는 말인데, 만주인 외에도 청조에 투항한 몽고인(1635년에 몽고팔기 증설)과 한인(1642년 한인팔기 증설)도 팔기군에 조직되었다. 몽고인과 한인도 공적이 있으면 팔기군 안에서 높은 직책을 맡았고 귀순할 당시 조건에 의해 관직의 등급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순치 때 한인만을 대상으로 따로 군대를 편제하여 綠營이라 하였다. 임계순, 《淸史 -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서울: 신서원, 2001년) 참조.
- 110) 宋德宜(1626~1687): 자는 右之로 江南 長洲(지금의 江蘇省 蘇州市)출신이다. 순치 12년인 을미년(1655)에 2갑 제3명으로 진사가 되었고 강희 8년(1669)에 제주를 맡았다.
- 111) 李仙根(1621~1690): 자는 子靜이고 호는 南津이며, 세간에 '李侍郎'으로 불린다. 유명한 서법가이자 외교가인 이선근은 청대 사천성에서 榜眼이 된 유일한 인물이다. 부친 李實(1597~1674)은 명대의 언어학자이다. 이선근은 순치 18년인 신축년(1661)에 진사가 되었고 강희 7년(1668)부터 8년(1669)까지 安南(베트남)에 외교사신으로 파견되었으며, 강희 9년(1670)에 제주를 맡았다. 저서로 《安南使事紀要》가 있다.
- 112) 楊正中(?~?): 양정중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문과 《도려잡록》 권2의 기록에 의하면 양정중은 순치 15년인 무술년(1658)에 진사가 되었고 강희 9년(1670)에 제주를 맡았다. 《청조진사제명록》에 의하면 무술과에서 양정중은 2갑 제67명이었다.
- 113) 徐元文(1634~1691): 자는 公肅이고 호는 立齋이며, 강소성 崑山 사람이다. 서원문은 探花 徐乾學(1631~1694)과 徐秉義(1633~1711)의 동생으로, 이 세 형제는 모두 관직이 높고 문장이 뛰어나 '崑山三徐'라 불리며 유명했다. 서원문은 순치 16년인 기해년(1659)에 진사 1등을 하여 순치제로부터 '佳狀元'이라 칭찬받고 冠帶와 蟒服, 乘御馬 등을 하사받았다. 翰林院修撰으로 일하다 강희 9년(1670)에 제주로 승진하였으며 18년에는 《明史》편찬을 맡았다. 이후 관직이 左都御史, 文華殿大學士 겸 翰林院掌院學士까지 올랐다. 저서로 《含經堂集》과 《得樹園詩集》등이 있다. 서원문은 《지북우담·談故一》의 제22편 <蘇州會元狀元>과 제23편 <崑山徐氏三及第>에 연이어 언급되었다.

士, 順天涿州人】 115), 王士禛【乙未戊戌進士, 山東新城人】 116), 李元振【辛丑甲辰進士及第, 河南柘城人】 117), 翁叔元【丙辰進士及第, 江南常熟人】 118), 曹禾【甲辰進士, 江南江陰人】 119), 汪霏【丙辰進士, 浙江錢塘人】 120), 吳苑【壬戌進士, 江南歙縣人】 121), 張榕端【丙辰進士, 河南磁州人】 122), 孫岳頌【壬戌

자세한 내용은 권운영·김숙향·김희경, <《池北偶談》 卷1 <談故 1>의 번역과 주해 (2)> (《中國語文論譯叢刊》 第43輯, 2019), 417-420쪽 참고.

- 114) 沈荃(1624~1684): 자는 貞葵이고 호는 繹堂이다. 순치 9년인 임진년(1652)에 探花로 뽑혀 編修가 되었고 詹事府詹事, 翰林院侍讀學士, 禮部侍郎을 역임하였다. 강희 13년(1674)에 제주를 맡았다. 시호는 文恪이며 저서로 《充齋集》이 있다. 서법에 뛰어났는데 米芾(1051~1107)과 董其昌(1555~1636)을 본받았다. 강희제의 인정을 받은 서법가로 유명하였다. 본문에서는 심전의 출신지를 江南 華亭이라 기록하였는데 《도려잡록》 권2에는 江南 青浦라 기록하였다. 화정은 上海 松江의 옛 명칭이고 青浦는 송강의 북쪽 지역에 속한다.
- 115) 馮源濟(1637~?): 자는 胎仙이고 호는 穀園이다. 순치 12년인 기미년(1655)에 2갑 제 43명으로 진사가 되었다. 이 해 진사는 1갑 3명, 2갑 77명, 3갑 319명으로 모두 399명이었다. 이후 翰林院侍讀, 左庶子, 經筵講官을 역임하였고 國子祭酒는 강희 15년(1676)에 맡았다. 서법은 米芾(1051~1107)을 배웠고 산수화는 董源(943?~962?)과 黃公望(1269~1354)을 본받아 배치가 시원스럽고 필묵이 질다. 저서로는 《奉搜賦》, 《敬勸箴》, 《穀園恰宜樓詩集》이 있다.
- 116) 王士禛(1634~1711): 왕사진은 순치 8년 鄉試에서 6등으로 급제했고, 12년 을미년(1655) 會試에서 56등으로 급제했으며, 15년 무술년(1658)에 殿試에서 2갑 제36명으로 진사가 되었다. 그 후 강희 19년(1680)에 제주를 맡았다.
- 117) 李元振(1636~1719): 자는 貞孟이고 호는 楊園이다. 순치 18년 신축년(1661)년 會試에 급제하였고 강희 3년 갑진년(1664)에 榜眼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翰林院編修, 副督御史, 工部左侍郎을 거쳤으며, 제주를 맡은 건 강희 22년(1683)이었다. 이원진은 평생 학문을 좋아하여 노년에도 쉬지 않았다. 《太祖實錄》 편찬을 맡았으며 저서로는 《暢春園恩詩》, 《恭守堂存稿》, 《誠孚堂存稿》 등이 있다.
- 118) 翁叔元(1633~1701): 본명은 繩이며 자는 寶林이고 호는 靜鄉 또는 鐵庵이다. 江南 常熟(지금의 江蘇省 蘇州市) 출신이다. 강희 15년인 병진년(1676)에 1갑 探花로 진사가 되었다. 이 해에 진사는 1갑 3명, 2갑 50명, 3갑 156명으로 모두 209명이었다. 이후 24년(1685)에 제주를 맡았다. 翰林院檢討, 侍讀, 侍講學士, 內閣學士, 吏部侍郎, 工部尙書, 刑部尙書까지 역임하였는데 36년(1697)에 건강이 나빠져 벼슬을 그만두고 4년 뒤인 69세(1701)에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 《梵園詩集》과 《鐵庵文稿》가 있다.
- 119) 曹禾(1637~1699): 자는 頌嘉이고 호는 未庵으로 江南 江陰(지금의 江蘇省 江陰市) 출신이다. 강희 3년 갑진년(1664)에 3갑 제85명으로 진사가 되었고 18년(1679)에 翰林院編修를 맡았으며 26년(1687)에 제주를 맡았다. 顏光敏·田雯·宋肇 등과 함께 '詩中十子'로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未庵初集》과 《峨嵋集》이 있다.
- 120) 汪霏(?~?): 왕빈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자는 朝采이고 호는 東川이다. 浙江 錢塘(지금의 浙江省 杭州市) 출신이다. 강희 15년인 병진년(1676)에 2갑 제13명으로 진사가 되었고 18년(1679)에 編修를 맡았으며 28년(1689)에 제주를 맡았다. 후에 관직이 戶部侍郎까지 올랐다. 저서로는 《西泠唱和集》이 있다.
- 121) 吳苑(1638~1700): 자는 榜香으로 강남 歙縣(지금의 安徽省 歙縣) 출신이다. 강희 21년

進士, 江南吳縣人】 123).

### 3. 나오며

이상 《지복우담》 권1 <답고 1>의 67조목 가운데 32-37편을 번역하고 주해를 하였다. 결론을 대신하여 각 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난음의 특별한 사례>에서는 순치·강희 연간에 있었던 특별 채용 사례에 대해 서술하였다. 순치제와 강희제가 친정을 하지 않았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있었는데, 친정을 하게 된 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자손들에게 관직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청초 권력과 이권을 두고 벌여졌던 혼란했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왕사진은 순치제와 강희제가 모두 ‘친정 이후’에 이전에 벌여졌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기술함으로써 황제가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았음을 강조하였다.

<두 사람이 《오경》으로 한림에 들어가다>는 강희제가 향시에서 《오경》에 관한 소를 잘 지은 두 명에게 특별히 거인의 지위를 내렸고, 이들은 이후 회시에 급제하여 한림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로번의 표문>은 강희 12년에 토로번의 국왕이 신하를 보내 말을 헌납하고 표문을 올린 사건을 기록하며 그 표문을 수록하였다. 역사적으로 토로번

인 임술년(1682)에 3갑 제4명으로 진사가 되었다. 이 해에 진사는 1갑 3명, 2갑 40명, 3갑 136명으로 모두 179명이었다. 이후 翰林院庶吉士로 올랐다가 31년(1692)에 제주를 맡았다.

122) 張榕端(?~?): 장용단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문과 《도려잡록》 권2의 기록에 의하면 장용단은 강희 15년인 병진년(1676)에 진사가 되었고 강희 33년(1694)에 제주를 맡았다. 《청조진사제명록》에 의하면 병진과에서 장용단은 2갑 제37명이었다.

123) 孫岳頌(1639~1708): 자는 雲韶이고 호는 樹峯으로 江南 吳縣(지금의 江蘇省 蘇州市) 출신이다. 강희 21년인 임술년(1682)에 2갑 제7명으로 진사가 되었고 34년(1695)에 제주를 맡았으며 侍郎을 겸임하였다.

은 당시 아르칸드칸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후 강희 17년인 1678년에 오이라트 몽고의 준가르칸국으로 넘어갔고, 건륭 20년인 1755년에 이르러 마침내 청 왕조의 영토로 복속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당시 지리적·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토로번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청성조인황제실록(大清聖祖仁皇帝實錄)》 권42 <강희 12년 5월(康熙十二年五月)>에도 토로번이 조공을 바친 것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데, 실록에는 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본편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 《지복우담》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악에 대한 제사>는 한대(漢代) 이래로 하북성 곡양현 북서쪽의 대무산을 북악으로 삼아 곡양에서 제사를 지내오다가, 명대에서 청대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의 논쟁을 거쳐 마침내 순치 17년(1660년)에 이르러 북악에 대한 제사를 산서성 훈원현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왕사진은 이 글에서 명대에서 청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던 북악 제사 이전 논쟁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순치제에 의해 마침내 잘못된 인습이 바로잡히게 되었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앵무를 물리치시다>는 강희 2년인 1663년에 서쪽 변경을 지키던 한 장수가 황금색 앵무를 얻어 황금으로 만든 새장에 넣은 후 황제께 바쳤다가 도리어 황제의 꾸중을 듣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9살의 어린 황제였던 강희제가 앵무를 물리치고 이를 엄히 타일러 경계하였던 일을 기술하여 황제의 청렴함과 비범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 명단>은 청초에 제주를 맡았던 인물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청초에 제주는 만주인·몽고인·한인이 각각 맡았는데, 1660년에 몽고인의 자리가 없어지고 만주인과 한인에게만 주어졌다. 본편에는 순치 원년(1644)부터 강희 34년(1695)에 이르기까지 제주를 맡았던 39명의 명단이 적혀있으며, 그 가운데 만주인은 5명이고 한인은 34명이다. 만주인 제주의 경우 성명과 더불어 제주직을 맡은 기간을 기록하였고, 한인의 경우는 성명과 함께 진사가 된 연도와 출신 지역을 기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마지막의 <제주 명단>을 제외한 앞의 편들은 대부분 순치제와 강희제가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며,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 왕조의 권위를 세웠던 일 등을 기술하여 황제를 칭송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 王士禛 撰, 靳斯仁 點校, 《池北偶談》, 北京: 中華書局, 1982.
- 王士禛 撰, 《池北偶談》(《四庫筆記小說叢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 王士禛 撰, 《池北偶談》(《清代筆記叢刊》, 濟南: 齊魯書社, 2001).
- 王士禛 撰, 孫言誠 點校, 《王士禛年譜》, 北京: 中華書局, 1992.
-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2003).
- 班 固, 《漢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歐陽修·宋祁 共撰, 《新唐書》, 台北: 中華書局, 1966.
- 張廷玉 撰, 《明史》, 台北: 中華書局, 1966.
- 《大清世祖章皇帝實錄》, 台北: 華文書局, 1968.
- 《大清聖祖仁皇帝實錄》, 台北: 華文書局, 1968.
- 趙爾巽 等 撰, 《清史稿》, 北京: 中華書局, 1977(1994).
- 陳子龍 等 選輯, 《皇明經世文編》(《續修四庫全書》 1655·165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沈 鯉, 《亦玉堂稿》(《(文津閣) 四庫全書》 430, 北京: 商務印書館, 2005).
- 顧炎武 撰, 《顧炎武全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 黃宗羲 編, 《明文海》, 台北: 商務印書館, 1976.
- 余 金, 《熙朝新語》(《續修四庫全書》 1178,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法式善, 《陶廬雜錄》, 北京: 中華書局, 1959.
- 臧勵齋, 《中國人名大辭典》, 台北: 台灣商務印書館, 1958.
- 俞鹿年, 《中國官制大辭典(上·下)》,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2.
- 江慶柏 著, 《清朝進士題名錄》, 北京: 中華書局, 2007.
- 임계순, 《清史 -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서울: 신서원, 2001.
- 진 정(金諍) 지음, 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 서울: 동아아시아, 2003.

고마츠 히사오 등 저, 이평래 옮김,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 서울: 소나무, 200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중국 清代 筆記 DB 자료집 I》, 서울: 도서출판 한모임,  
2011.

김호동 지음,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서울: 사계절, 2016.

李建淦, 《明清時期北嶽祭祀與信仰研究》, 山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7.

王希隆·楊代成, <清順康雍三朝對天山以南地方政權與地方勢力政策述評 — 以葉爾羌、哈密、吐魯番與清朝的互動關係爲中心>, 《西域研究》, 2018年 第1期.

김희경·김숙향·권운영, <《池北偶談》 卷1 <談故 1>의 번역과 주해(1)>, 《中國語文論叢》 第87輯, 2018.

권운영·김숙향·김희경, <《池北偶談》 卷1 <談故 1>의 번역과 주해(2)>, 《中國語文論譯叢刊》 第43輯, 2019.

<國學導航>: <http://www.guoxue123.com/index.htm>

<Chinese Text Project>: <https://ctext.org/ens>

### < Abstract >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Tangu 1" in *Chibeiotan*, juan One (3)

Kim, Heekyoung · Kim, Sookhyang · Kwon, Eunyong

*Chibeiotan* (池北偶談) is the 'biji (筆記)' of Wang Shizhen (王士禛). It is one of the works representing the biji of the Qing Dynasty, whose content covers various fields, including literature, Confucian classics, history, institution, and customs. The entire volume of *Chibeiotan* consists of 26 books and 1,292 articles, which are composed of "Tangu (談故)", "Tanxian (談獻)", "Tanyi (談藝)", and "Tanyi (談異)". This book describes a lot of articles that were not covered in history. So, it contains important data in studying of early Qing Dynasty.

We will ultimately translate the full volume of the *Chibeiotan* into Korean with a detailed annotations on the basis of the 1982 edition published by Zhonghua Book Company. This paper is the third work of the project, which

contains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6 articles(from No. 32 to 37) contained in “Tanggu 1”. Most of the content of these articles has a characteristics that praises the Emperor Shunzhi and Kangxi by describing the correction of the past wrongs, dealing with things in a clean and fair, and establishing the authority of the dynasty by receiving tribute from neighboring, etc. We tried to elaborate on historical figures and events by providing as much relevant information as possible, such as various documents and materials through the annotation.

This paper, therefore, aims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related research by providing the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Chibeiotan*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e study of Qing Dynasty.

Key words: *Chibeiotan* (池北偶談), Tangu (談故), Translation, Annotation, Wang Shizhen (王士禛), *biji* (筆記), Qing Dynast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4. 30	2019. 5. 10	2019. 5. 13	2019. 5. 25	2019. 6. 30